

애착과 대인관계: 여대생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 지 은 방 희 정[†] 윤 진 영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세대 간을 뛰어넘는 애착의 안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정서적인 요소가 대인관계라는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부모세대의 애착- 자녀 세대의 애착-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을 알아보았다.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 간 전이 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크게 대모, 부모 및 여성 피험자와 대부, 부모 및 남성 피험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청년기 자녀의 부모애착 및 부모의 대모애착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시도되었고 대모, 부모 및 여성 피험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남성을 고려한 연구는 후속연구로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의 여대생 20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첫째, 자녀-부애착은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 중 권리주장 영역을 가장 잘 예측하였고, 자녀-모애착은 전반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비롯하여 처음관계맺기,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 영역을 예측하였다. 둘째, 부모의 대모애착은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했지만, 부-대모애착은 자녀-부애착에 의해, 모-대모애착은 자녀-모애착에 의해 완전 매개되어 여대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애착과 모애착이 기여하는 상이한 영향을 확인하고, 부모가 어린 시절에 대모와 형성했던 애착의 질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매개로 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청년기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부애착, 모애착, 부모애착, 대모애착, 대인관계

[†] 교신저자 :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hjbang@ewha.ac.kr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존재이며 근본적으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지닌다. 생애초기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발달은 애착으로,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그러한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인 발달을 해 나아간다.

애착이란 영아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강력한 정서적 결속으로(Bowlby, 1958) 위험을 지각할 때 애착이 형성된 대상에 대해 근접을 유지하고 위안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데(Ainsworth, 1979), 이러한 절차에서 안정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유아는 애착대상을 안전기지(secure base)로 여기게 된다.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영아의 애착원인과 과정을 밝혀왔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애착이 구강기 욕구와 같은 기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 성향이라고 간주하였다. 사회학습이론가들은 접근추구와 같은 애착 행동(미소, 울기, 웅얼이, 매달리기 등)을 고전적 조건화 혹은 강화와 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영아가 생애초기부터 애착 대상에 대한 대상영속성과 타인을 구별하는 변별력을 지니며 이러한 애착관련 정보에 대한 선택적 주의집중은 장기기억에 저장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이는 이후 지식정보 체계를 해석하고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과 관련된 자신과 타인의 내적 실행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 진화론적 관점을 강조하는 동물행동학 이론가들은 영아의 근접과 접촉추구 행동을 진화된 적응양식으로 여긴다. 대표적인 동물행동학자인 Bowlby(1969)는 영아가 애착행동체계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통

해 양육자로부터 보살핌을 이끌어내어 안정감을 얻어 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초기 애착관계에서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여 형성된 애착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점차 또래와 이성 친구와의 애착관계로 나아간다. 특히 물리적 환경과 대인관계에 있어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며, 자아정체감 확립을 주요 발달 과업으로 여기는 청년기에는 부모로부터의 의존을 탈피하여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모 외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청년기 자녀의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정서적 유대가 이완되어야 한다는 접근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부모와의 분리개별화의 과정이 부모에 대한 전적인 단절이나 애착대상의 교체를 의미하지는 않았으며(Kenny, 1987),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대학생의 또래관계, 사회성 발달,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장휘숙, 2002).

즉, 청년기에 있어 부모애착은 또래애착과 같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근원이 되며 부모는 여전히 안전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애착이 전생애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애착을 통해 선택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Bowlby의 주장과 일관된 흐름을 갖는다.

애착과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개인들이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정서적 결속이나 연계를 형성하는 것으로(Montemayor, 1982),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관계

중심주의,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대인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삶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능력으로 인식되며 강조되어 왔다(박영호, 2006). 안전한 관계망 속에서 얻어지는 지지는 다양한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기여함으로써(Rook, 1984),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Bowlby와 Ainsworth에 의해 유아와 어머니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된 이후에도 애착은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민감하고 지지적인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내적 실행모델을 형성한 영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안전하고 상호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협상능력의 발달로 타인과의 갈등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비가용적이고 처벌적인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한 영아는 자신이 쓸모없다는 부정적인 내적 실행모델을 형성하고 나아가 세상과 타인을 인식하는데 있어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겨 도피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또한 생애초기에 맺은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이후 청년기의 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정체감 발달에서의 개인차는 청년기 대인관계 적응과 상관이 높다. 이 시기의 대인관계는 보다 확대된 사회적 관계망에서 청소년기보다 복잡하며 영향력이 크다. 여기에는 동성과 이성을 포함한 상호관계의 친밀성, 자기노출과 정서적 취약성을 포함한 깊은 의사소

통적 관계, 관계성 내에서의 기능, 대등한 관계나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 더 큰 사회적 관계망 등이 관여된다(Sroufe, Egeland & Carlson, 1999). Kenny(1987)에 의하면, 신입생이나 저학년들에게 대학환경은 영아연구에서의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과 유사한 맥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애착관련적 도식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때 적응적 도식이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부모에게 안정애착을 형성했을 경우, 청년후기의 변화하는 환경적 맥락 내에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고 연구를 통해 부모의 애착이 적응을 비롯하여 자기주장성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Lapsley, Rice와 Fitzgerald(1990)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의 대학생들이 자기표현력이 높으며,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수줍음이 덜하다고 보고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Bowlby의 이론을 확장하여 유아기와 성인기 애착의 강한 유사성을 밝혀냈고 Collins와 Read(1990)은 이것을 토대로 성인기 애착유형을 차원으로 제시하여 대인관계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안정유형의 성인들은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친밀감과 독립성 모두에서 균형을 추구하여 애착의 작동모델에서도 온정성, 사교성과 같은 대인관계적 측면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관계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았다(Pietromonaco & Barrett, 2000). 회피애착 유형인 경우, 친밀감을 덜 추구하고 개인적 정보의 노출을 꺼리며, 사회적 상황에서 덜 확신적이나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여 자기주장성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인간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며 타인들에 대해 의존 할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몰입과 두려움 유형의 경우, 친밀감에 대한 강한 바람을 표현하고, 대인관계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낭만적 관계에 보다 강한 정서와 기복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확신과 자기주장성이 떨어지며, 스스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즉, 안정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인지체계가 유연하여 대인관계와 정서 표현에 있어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애착(회피, 몰입, 두려움 유형)을 이룬 성인들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데 있어 자신의 불안정한 인지적 특징들을 반영하였고 정서적 표현 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 안정유형과 차이가 있었다. 한편 김동직과 한성열(1997)은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유형과 대인관계 연구를 통해서 애착 유형의 분포가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대인관계 특성에 있어서도 불안정형 중 몰입형으로 분류된 한국 대학생들이 대인관계 영역에서 뚜렷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이를 관계지향적인 한국문화에서 친밀감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진 몰입형이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적응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Harlow(1961)는 최초의 애착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모든 대인관계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생애에 걸쳐 변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하여 모-자녀간의 애착을 강조하였다. 반면 Thompson(1987) 영아-모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조화로웠을 경우 초기형성된 애착안정성이 지속되어 이후 발달에서도 일관될 수 있지만, 이후 환경이 변화하면 애착안정성과 이후 발달과의 관계는 약해지거나 없

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Belsky와 Cassidy (1994)는 애착과 후기행동은 약한 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여겼으며 아동기 동안 친밀했던 부모-자녀 관계는 전생애동안 작용하는 것이 아닌 동시대적 발달과 적응에 더 강한 관계를 가진다고 여겼다.

애착의 안정성과 지속성

세대간 전이: 어머니의 역할

초기 애착연구가 영아기만의 발달적 특성과 과업으로 인식된 이래 후속 연구들이 거듭되면서 애착 연구 주제 및 대상의 확장으로 애착개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행되는 인류의 특징(Bowlby, 1979)이자 전 생애 동안 타인과 형성하게 되는 정서적 유대관계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다(Bretherton, 1985).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이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애착 대상에 대한 표상인 내적 실행모델을 통해 가능하다. 내적 실행모델은 영아가 애착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형성한 정신적 표상으로 관계에 대한 개념과 기대감을 포함하며 이는 후에 개인의 성격구조로 통합된다.

오늘날의 애착연구가 전 생애적 관점으로 확대되고 영유아기 이후의 다양한 경험들의 역동성으로 인해 내적 실행모델의 가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Bretherton, 1985) 안정과 불안정 애착의 질적 차이는 애착이 형성되었던 초기경험에 의해 좌우된다. 영아와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며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1차적인 양육자는 어머니이며, 애착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Bromwich, 1990). 또한 이는 영아기 이후의 발달에서 언어발달, 표현

능력, 문제해결능력, 호기심, 자기통제력 등과 같은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경숙, 2001). 또한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는 유아기에도 안정적이었으며, 특별한 환경적 변화가 없는 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도 안정적이었고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자율적인 성인으로 발달하였다(Goldberg et al., 2000; 정옥분외, 2009) 이처럼 영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때 형성된 내적 실행모델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하며, 개인이 경험한 초기 애착은 부모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영향을 받아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세대간 전이를 발생시킨다(Bretherton, 1991; Crowell & Feldman, 1991; Fonagy, Steel & Steel, 1991).

즉,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와의 경험으로부터 어머니 역할을 배우며,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반복해서 연출한다(이현미, 1996). van IJzendoorn(1995)는 어머니의 어렸을 적 애착이 지금 자녀와 함께 형성해가는 애착유형의 주요 변인임이 밝혔으며, 또한 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살펴본 국내연구에서도 영아의 개인적 특성(성별, 월령, 기질)과 배우자 변인(남편의 지지, 결혼만족도)보다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다(황현주와 정옥분,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 자신의 내적 실행모델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애착의 주요 변인임을 입증한 것으로 어머니의 초기 애착경험이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므로 매우 안정적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애착에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는 가족 형성의 주체적인 구성원임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애착연구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며 아버지의 영향력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관점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자녀 양육이나 애착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헌들은 영아와 어머니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핵가족, 취업모 및 이혼율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자녀와 아버지의 결속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Owen et al., 1984). 어머니에 비해 영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비해 다소 늦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버지는 영아의 직접적인 애착대상이며 나아가 아동의 어머니-영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의 전 생애적 발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애착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정신병리가 아버지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hares & Compas, 1992). 한편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기술, 태도, 신념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애착은 사회적 기술을 예측하였고, 정서조절과 통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학업성취 및 진로장벽 인식과도 관련있었다(Pietromonaco & Barret, 2000; Ross, 2008; 이항심, 2007).

아버지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아버지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과 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는 자녀를 달래주고 신체적 욕구를 채워주는 양육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반면에, 아버지는 보다 탐색적이고 재미있는 놀이 상대자로 여겨졌다(Lamb & Oppenheim, 1989; Clarke-Stewart, 1978). 따라서 이는 아버지 애착은 어머니 애착이 기능하지 못하는 다른 영역에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동시에 어머니 애착과 다른 차원의 척도로 아버지 애착이 측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하였지만 아버지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낯선 사람과 더 효율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Main & Weston, 1981). 이와 같이 아버지 애착은 불안정적인 어머니와의 애착에 따른 영향을 경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머니와의 불안정애착이 세대 간 전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단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애착의 정서적인 요소가 대인관계라는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선행연구 결과들은 큰 틀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안정애착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이고 유능하게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방법론과 피험대상의 연령을 확장하여 부모애착의 구체적인 영향력과 세대간을 뛰어넘는 애착의 안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대인관계에 있어 청년기 여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대모에 대한 애착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자녀-부/모애착, 부/모-대모애착 및 자녀의 대인관계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자녀-부/모애착과 부/모-대모애착은 자녀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자녀-부/모애착은 부/모-대모애착과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을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205명과 그 부와 모 각각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79쌍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의 자료를 제외하고 205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집단으로 실시되었고, 부모의 응답은 2주의 간격을 두고 여대생 자녀를 통해 수거되었다.

도 구

본 연구에서 여대생 자녀는 부모애착,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완성하였고, 부모는 대모애착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녀의 부모애착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써 상호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개념을 통합한 총점으로 분석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형 5점 척도로서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역채점을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rmsden(1989)의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 애착척도 .89, 어머니 애착척도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 애착척도 .92, 어머니 애착척도 .90 이었다.

대인관계 능력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한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98)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사용하였다. ICQ 항목들은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각 문항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청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을 기술하고 있다. 하위영역인 처음 관계 맺기, 권리주장, 자기 노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 등 5개 영역에 대해 각각 8 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창대와 김수임(1999)의 연구에서의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에서 .91 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61에서 .85 사이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능력 척도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아 기여도가 없는 12번(권리주장 영역), 40번 문항(대인갈등 다루기 영역)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서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역채점을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대모애착

부/모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92)가 제작한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기초로 정혜승(2000)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경험과 관련하여 16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어머니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나는 어머니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었다’,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해 주셨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항의 각 문항들을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1)’에서 ‘매우 그랬었다(5)’까지의 점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애착척도의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에서 역채점을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애착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대모에 대한 애착만을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는 아버지와 어머니 대모애착문항 모두 .91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 분석은 SPSS/PC+ Version 15.0을 사용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자녀의 부/모애착, 부/모의 대모애착 그리고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녀의 부/모애착과 부/모의 대모애착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대모애착과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자녀의 부애착과 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고 Sobel test를 통해 그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자녀의 부/모애착, 부/모의 대모애착, 대인관계 간의 관계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 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측정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녀-부애착과 자녀-모애착은 대부분의 종속변수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며, 부-대모애착, 모-대모애착은 다소 낮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인관계 총점에서는 자녀-부애착($r=.44, p<.01$), 자녀-모애착($r=.48, p<.01$), 부-대모애착($r=.18, p<.01$), 모-대모애착($r=.15, p<.05$)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아버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대생의 대인관계에서 자녀의 부/모애착, 부/모의 대모애착의 설명력

많은 선행연구에서 애착의 정서사회적 측면에서 모애착의 효과가 강력함이 입증되었으며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N=205)

	1	2	3	4	5	6	7	8	9	10
부모애착										
1. 자녀-부애착	-									
2. 자녀-모애착	.79**	-								
대모애착										
3. 부-대모애착	.21**	.18**	-							
4. 모-대모애착	.11	.19**	.11	-						
5. 대인관계(전체)	.44**	.48**	.18**	.15*	-					
6. 처음관계맺기	.31**	.38**	.12	.07	.80**	-				
7. 권리주장	.32**	.26**	.09	.01	.60**	.33**	-			
8. 자기노출	.36**	.41**	.19**	.18*	.82**	.65**	.39**	-		
9. 정서적지지	.32**	.36**	.19**	.17*	.72**	.42**	.15*	.49**	-	
10. 대인갈등다루기	.23**	.26**	.06	.14	.56**	.27**	.08	.27**		-

* $p<.05$, ** $p<.01$,

부애착은 모애착과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는 연구결과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의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 부의 대모는 자녀의 부와 연결고리를 가지며, 모의 대모는 자녀의 모와 연결고리를 가지므로 각각 나누어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자녀의 부/모애착, 부/모의 대모애착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부애착, 자녀-모애착, 부-대모애착, 모-대모애착이 자녀의 대인관계를 예측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만을 <표 2>에 제시하였다($F(1, 203), p < .001$). 분석 결과,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있어 자녀-모애착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48$). 또한 세부적인 하위요인에서 자녀-모애착이 처음 관계맺기($\beta = .38$), 자기 노출($\beta = .41$), 정서적 지지($\beta = .36$), 대인갈등다루기($\beta = .26$)에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권리 주장에서는 자녀-부애착($\beta = .32$)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한편 부-대모애착, 모-대모애착은

자녀의 대인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의 대모애착과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자녀-부애착의 매개효과

부-대모애착이 자녀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부애착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96)의 모형에 의거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 매개(full mediation),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part mediation)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대모애착이 매개변인인 자녀-부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표 2> 자녀의 부모애착, 부모의 대모애착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2	F
대인관계(총점)	자녀-모애착	.48	7.76***	.23	60.29***
처음관계맺기	자녀-모애착	.38	5.80***	.14	33.60***
권리 주장	자녀-부애착	.32	4.75***	.10	22.54***
자기 노출	자녀-모애착	.41	6.43***	.17	41.40***
정서적 지지	자녀-모애착	.36	5.57***	.13	30.97***
대인갈등다루기	자녀-모애착	.26	3.88***	.07	15.06***

*** $p < .001$

<표 3> 부-대모애착과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자녀-부애착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β	t
		B	SE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대모애착 → 자녀-부애착	.33	.11	.21	3.04**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대모애착 → 대인관계	.27	.10	.18	2.65**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부-대모애착 → 대인관계	.14	.09	.10	1.49
	2) 자녀-부애착 → 대인관계	.39	.06	.42	6.53***
단계 1,	$R^2=.04, F(1,203)= 9.25, p= .003$			$*p<.05, **p<.01, ***p<.001$	
단계 2,	$R^2=.03, F(1,203)= 7.04, p= .009$				
단계 3,	$R^2=.20, F(2,202)= 25.56, p= .000$				

.21, $p<.01$), 두 번째 단계에서 부-대모애착이 종속변인인 자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18, p<.01$). 그러나 세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녀-부애착이 자신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beta=.42, p<.001$) 부-대모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beta=.10, p \rightarrow$ 무의미 수준)은 통계적으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량은 증가하였다. 부-대모애착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3%에 [$F(1, 203)=7.04, p<.01$] 불가하였지만, 자녀-부애착이 투입되었을 때는 20%로 늘어[$F(2, 202)=25.56, p<.001$] 총 17%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대모애착은 자녀의 대인관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자녀-부애착을 통한 완전 매개효과만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매개효과가 또한 검증되었다($t=2.72, p<.05$).

모의 대모애착과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자녀-모애착의 매개효과

모-대모애착이 자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모-대모애착이 매개변인인 자녀-모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9, p<.01$), 두 번째 단계에서 모-대모애착이 종속변인인 자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15, p<.05$).

그러나 세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녀-모애착이 자신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beta=.47, p<.001$) 모-대모애착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beta=.06, p \rightarrow$ 무의미 수준)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량은 증가하였다. 모-대모애착 단독으로는 2%에 [$F(1, 203)=4.53,$

<표 4> 모-대모애착과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자녀-모애착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β	t
		B	SE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모-대모애착 → 자녀-모애착	.24	.09	.19	2.75**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모-대모애착 → 대인관계	.21	.10	.15	2.13*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모-대모애착 → 대인관계	.08	.09	.06	.95
	2) 자녀-부애착 → 대인관계	.52	.07	.47	7.44***
단계1,	$R^2=.04, F(1,203)= 7.53, p= .007$			$*p<.05, **p<.01, ***p<.001$	
단계2,	$R^2=.02, F(1,203)= 4.53, p= .035$				
단계3,	$R^2=.23, F(2,202)= 30.57, p= .000$				

$p<.05$] 불과했지만, 자녀-모애착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량이 23%로 [$F(2, 202)=30.57, p<.001$] 늘어 총 21%가 증가하였다. 즉, 자녀-모애착은 모-대모애착과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epsilon = 2.51, p<.05$).

따라서 매개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부와 모의 대모애착 모두 완전 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대모애착은 자녀의 부 혹은 모애착을 통해서만 대인관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총 설명량으로 비교해보자면, 부-대모애착과 대인관계에 사이에서 자녀-부애착의 매개효과는 17%의 설명량의 증가를 보였고, 모-대모애착과 대인관계에서 자녀-모애착의 매개효과는 21% 설명량의 증가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5쌍) 부모 세대의 대모애착-자녀 세대의 부모애착-대인관계로 이어지는 관계에 초점을 두어 자녀의 부모애착, 부모의 대모애착, 자녀의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상관 분석 결과 자녀-부애착, 자녀-모애착, 부-대모애착, 모-대모애착은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전반적으로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자녀-부애착과 모애착은 대부분의 종속변수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고, 부-대모애착, 모-대모애착은 다소 낮지만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자녀-모애착은 다른 독립변인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의 총점과 전반적인 영역(처음관계맺기,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에서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하위요

인인 권리주장에서는 자녀-부애착이 자녀-모애착보다 우세하였다.

둘째, 자녀-부애착, 자녀-모애착, 부-대모애착, 모-대모애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모애착은 여대생의 대인관계 능력 전반에 대해 가장 잘 예측하였고 나아가 세부적인 하위 영역에서는 처음관계맺기,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 전반적 심리적 적응에 모애착이 부애착보다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며(장휘숙, 2000), 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데(Filsinger & Lamke, 1983)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대생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녀-부애착은 권리주장 영역에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타인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은 자녀-부애착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장휘숙, 2000)와 큰 맥락에서 흐름을 같이 한다.

또한 자녀-모애착과 자녀-부애착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능력의 세부적인 영역을 예측하는데 있어 그 영향력은 분리되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로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서 모애착과 부애착의 역할이 다르게 기능한다는 이론을 지지한다(Parke & O'Leary, 1975). 이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략, 태도, 신념들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았는데 특히 부애착의 경우 우수여자청소년기의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장벽(이항심, 2007)에서, 여자대학생의 경우 진로결정(허윤희, 2004)에서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대학생의 분리

나 자율성 획득에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장휘숙, 2002)이 기존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

한편 부-대모애착과 모-대모애착은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검증을 통해 자녀-부애착과 자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그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부-대모애착, 모-대모애착은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각각 자녀-부애착과 자녀-모애착을 매개로 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대모애착은 자녀-부애착을 완전 매개로 하여 청년기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모-대모애착은 자녀-모애착을 완전 매개로 하여 청년기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장미자와 조복희(1999)는 영아-어머니 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안정적인가 하는 것이 영아의 애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초기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이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되며 다음 세대까지 전이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비교하여 청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대모애착이 다소 낮지만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며, 자녀와의 애착을 매개로 세대간 전이의 영향력이 유의함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와의 애착은 모애착이 약한 혹은 기능하지 못하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관여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의 균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애착의 안정적인 속성으로 인해 부모가 어린 시절에 대모와 형

성했던 애착의 질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자녀들에게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여대생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을 매개로 하여 그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의 안정적인 속성을 밝히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이 상관 분석만을 이용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매개검증을 사용하여 애착변인이 보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임을 밝혔다. 따라서 현 여대생의 대인관계 능력에는 조모들이 자신의 자녀와 맺은 사회 정서적 경향이 세대를 걸쳐 유의하게 관계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현재 여대생이 맺고 있는 애착은 자신의 다음세대를 양육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세대를 뛰어넘는 애착의 지속적인 영향을 밝힌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아나 아동기의 연령에 치중되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애착의 속성이 확장된 범위의 연령까지 매우 안정적임을 밝혔다.

셋째, 대인관계 능력을 예측하는데 있어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이 각기 다른 속성을 지닌다는 기존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또한 사회적 능력의 측정 변인 내에서도 그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을 실제로 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족통계학적인 특성상 중산층 이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여대생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사회계층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성차를 검증하기 위해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후속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둘째, 결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버지 애착은 어머니 애착과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도의 한계로 인해 동일한 것대의 문항으로 애착을 측정된 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다 아버지 애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이나 척도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질문지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도 피험자 편향과 자기 보고식 척도의 한계가 있다. 모든 측정변인들이 자기보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자아의 방어기제와 같은 오류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창대, 김수임 (1999).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35(1), 83-95.
- 박영호 (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경숙 (2001). 영아기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7(1), 21-34.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향심 (2007).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존감 및 진로 장벽의 구조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미 (1997).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자, 조복희 (1999). 애착의 세대간 전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아동학회지, 20(1), 147-164
- 장휘숙 (2000a).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 장휘숙 (2000b).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41-157.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학지사
- 정혜승 (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애착 및 양육 행동과 자녀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윤희 (2004).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현주, 정옥분 (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학회지, 13(3), 57-78.
- Ainsworth, M. D. S (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 *Advances in the Study of Behavior*, 9, 2-52.
-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lsky, J., & Cassidy, J. (1994).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M. Rutter & D. Hay (Eds.), *Developmental through life: A handbook for clinicians*. 373-402. Oxford: Blackwell.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1.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Nos. 1-2, Serial No. 209).

- Bretherton, I. (1991). The roots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London: Routledge.
- Bromwich, R. M. (1990). The interaction approach to early interven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1(1), 66-79.
- Burh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Clarke-Stewart, K. A. (1978). And daddy makes three: The fatherps impact on the mother and young child. *Child Development*, 49, 466-478.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rowell, J. A., & Feldman, S. S. (1991). Mother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97-605.
- Filsinger, E., & Lamke, L. K (1983). Parental antecedents of sex role orientation. *Adolescence*, 18(70), 429-432.
- Fonagy, P., Steel, G., & Steel,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infant-mother attachment patterns at one year.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Goldberg, S., Muir, R., & Kerr, J. (2000). *Attachment theory*. Hillsdale, NJ: The Analytic Press.
- Harlow, H. F. & Zimmerman, R. R. (1959). Affectional responses in the infant monkey. *Science*, 130, 421-432.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Lamb, M. E. & Oppenheim, D. (1989). Fatherhood and father-child relations: Five years research. In S. H. Cath, A. Gurwitt, & L.Gunsberg (Eds.), *Fathers and their families*. Hillsdale, NJ: Erlbaum.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5), 561-565.
- Main, M., & Weston, D.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Owen, M., Esterbrooks, M., Chase-Lansdale, L., & Goldberg W. A. (1984).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employment status and the stability

- of attachments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55(5), 1894-1901.
- Phares, V., & Compas, B. E. (1992). The role of fathers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ake room for daddy. *Psychological Bulletin*, 3, 387-412.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55-175.
- Rook, K.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097-1108.
-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A. (1999). One social world: The intergrated development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s. In Collins, W. Andrew; Laursen, Brett (1999). Relationships as developmental context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30. 241-261.
- Thompson, R. A. (1987). Empathy and emotional understanding: The early development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1 차원고접수 : 2009. 8. 09.

심사통과접수 : 2009. 8. 28.

최종원고접수 : 2009. 9. 27.

The Relation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ttachment, Parent's Attachment and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Ji Eun Shin

Hee Jeong Bang

Jin Young Yo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investigated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focusing on attachment through a generation. The subjects were 205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located in Seoul. With the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IPPA-R), the scale of interpersonal competence(ICQ) to students and the adult attachment scale(ASS) to their parents were use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verall relationships among the attachment to mother and attachment to father were significant with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multi-regression analysis, attachment predicted female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Especially the attachment to mother effected on initiation, disclosure, emotional support and conflict management. In addition, the attachment to father predicted negative assertion. the father's attachment to his own mother was completely mediated by the student-father attachment, and the mother's attachment to her own mother was completely mediated by student-mother attachment and effected in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Key words :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father attachment, parent's attachment to their moter, interpersonal competence